

버지니아 공대 총기참사



17일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에서 열린 총기참사 사건 희생자 추모 철야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이 목사의 기도를 들으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힐러리 “등록제” 오바마 “소지 금지”

총기관리美 대선 쟁점 부각

사상 최악의 버지니아공대 총기참사 사건을 계기로 미국 조야에서 잠복해 있던 ‘총기 규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후보들은 ‘규제론자’…쟁점 안될 듯
=이번 총기참사 사건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내다봤다. 주요 후보들이 대개 총기규제 옹호론자도 이 이슈를 밀어붙여 봐야 할로 특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중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미국총기협회’로부터 이미 최악의 평가를 받은 상태이며 공화당의 유력 후보인 루디 윌리엄스 전 뉴욕시장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토론을 불지람 것으로 예상된다. 총기규제 옹호의 선두에 서왔던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상식적인 총기규제 법안

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이 재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도 사건 직후 “이러한 비극을 바꾸는데 필요한 조치를 논의할 때”라며 거들었다. 이들 두 의원은 2009년 이후 제정되는 모든 총기에 작은 인식을 붙이지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의회 총기규제 강화 논의 불지필 듯…결과는 불투명 =총기참사 사건이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에서 총기관리법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토론을 불지람 것으로 예상된다. 총기규제 옹호의 선두에 서왔던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상식적인 총기규제 법안

“이민 1.5세대 부적응이 참극 불렀을 수도”

한·미간 ‘경계인’ 위치…문화·사회적 단절 불러

미국 사회 전체를 큰 충격과 슬픔에 휩싸이게 만든 버지니아공대 총기참사 사건의 범인이 한국인 재미교포 1.5세대 출신의 버지니아공대 재학생으로 드러나면서 1.5세대들의 부적응 스트레스가 참극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총기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씨가 남긴 행적 곳곳에서 부적응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친 기대와 교육열로 인한 잠재적인 스트레스가 참극을 불렀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자식에 대한 부모들의 지나친 기대, 전통적으로 높은 교육열 등 한국의 독특한 교육문화가 학생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예기치 못한 대형 폭력사건을 낳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번 일로 한국이민사회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 출신 학생들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도 생기고 있다”면서 “1.5세대 교포학생들에게 대학 이런 문제들도 현실적인 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교민은 “이번 사건이 여자친구 문제 때문에 비롯됐다는 미확인 보도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1.5세대 자녀들의 부적응 사례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도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수사당국은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승희(23·영문학과)씨가 자신의 기숙사방에 독설과 불만이 가득 담긴 노트를 남겼다고 확인했으며, 같은 대학의 한국 학생들도 그가 상당히 고립된 생활을 했다고 전하고 있다.

수사당국도 이 같은 정황을 고려, 조씨가 우울증으로 악몽을 복음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조씨가 대학에서 ‘외톨이(loner)’로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포 학생들과 조기 해외유학생들의 생활상과 어려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아가 형성되기 전인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해외 이민이나 유학을 갔을 때 가장 큰 충격은 언어·문화 차이와 이에 따른 사회적 부적응이라는 것이 경험자들의 말이다. 그러나 일부의 탈선 사례를 교포학생이나 유학생들의 전반적인 문제인 것처럼 부풀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홀로코스트 생존 고교수, 온몸으로 막다 희생 조씨에 범행 동기 부여 추정 여대생도 포함돼



조씨의 범행 동기를 제공한 여학생도 희생자중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대학교의 여학생인 에밀리 제인 힐스처(18)는 자신의 기숙사 방에서 조씨를 처음으로 만난 후에 조씨를 만났다. 조씨는 자신의 기숙사 방에 ‘내가 이번 일을 저지르게 했다’는 메모를 남겼다. 또 기숙사 도우미인 이 대학 4학년인 로인 클라크도 조씨의 충격을 받아 함께 숨었다. 이제까지 알려진 희생자들 중에는 조지아주 태생의 독일어 교수인 크리스토퍼 피버와 기계공학 교수인 케빈 크라나트, 인도 출신의 물리학 교수인 김수인(G.V. 노가나산(51) 등 교수들도 여러 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 참사 희생자 면면

미국 대학 사상 최악의 참사인 버지니아 총기참사 사건의 희생자 가운데 제2차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 현장에서 살아남은 뒤 루마니아에서 탈출한 일흔 여섯 살의 이스라엘인 강사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기계공학 및 수학담당 강사인 리부리 브레스쿠는 강의실에 있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강의실 문을 가로막고 섰다가 한국 교포학생 조승희씨의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리브레스쿠의 의로운 죽음은 그의 희생 덕분에 목숨을 건진 학생들이 이메일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조씨의 범행 동기를 제공한 여학생도 희생자중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대학교의 여학생인 에밀리 제인 힐스처(18)는 자신의 기숙사 방에서 조씨를 처음으로 만난 후에 조씨를 만났다. 조씨는 자신의 기숙사 방에 ‘내가 이번 일을 저지르게 했다’는 메모를 남겼다. 또 기숙사 도우미인 이 대학 4학년인 로인 클라크도 조씨의 충격을 받아 함께 숨었다. 이제까지 알려진 희생자들 중에는 조지아주 태생의 독일어 교수인 크리스토퍼 피버와 기계공학 교수인 케빈 크라나트, 인도 출신의 물리학 교수인 김수인(G.V. 노가나산(51) 등 교수들도 여러 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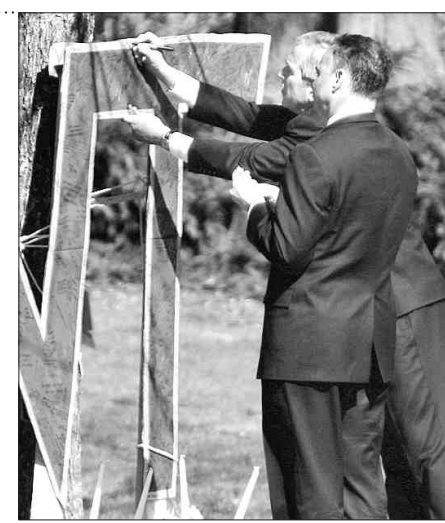
부시 “오늘은 슬픈 날” 모두가 울었다

희생자 추도식 애도 물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7일 미국 대학 사상 최대 참사가 발생한 버지니아공대(버지니아텍)의 캐슬 콜로세움에서 열린 희생자 추도식에 참석, “오늘은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날”이라며 깊은 애도를 표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슬픔에 가득 찬 가슴으로 오늘 블랙스버그에 왔다”면서 “오늘은 버지니아텍 커뮤니티를 애도하는 날이며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날”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도식은 삼엄한 경비속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학생들은 버지니아텍의 상징인 주황색 셔츠를 입고 추도식장으로 들어오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서로 께안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앞서 부시 대통령은 추도식으로 출발하기 앞서 버지니아텍 총기참사 사건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조기를 정부기관 건물에 22일까지 게양하라고 지시했다. 버지니아공대 소속 한국인 유학생들도 삼삼오오 그들을 지어 희생자 추모예배에 대거 참석,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엄중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미국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했다. 총격사건 현장에서 총탄에 맞아 부상,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박창민씨도 친구 10여명과 함께 행사장을 찾았다. 한인 학생들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국계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면서 “이번 일로 한국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버지니아공대는 이번 총격사건 여파로 1주일간 휴교에 들어간 데 이어 사건현장을 이번 학기동안 폐쇄기로 했다고 학생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총기참사 사건이 발생한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의 버지니아 공대를 방문, 추모관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사건번호	신청인	목적	금액
2007카공 178	김동선	자기앞수표 번호:가703579270~275, 가703579281~289	금액:각금100,000원(15매) 발행일:2007년 2월 27일
2007카공 179	김옥순	자기앞수표 번호:가703579270~275, 가703579281~289	금액:각금100,000원(15매) 발행일:2007년 2월 27일
2007카공 181	배동희	자기앞수표 번호:가703579270~275, 가703579281~289	금액:각금100,000원(15매) 발행일:2007년 2월 27일
2007카공 182	전선자	자기앞수표 번호:가703579270~275, 가703579281~289	금액:각금100,000원(15매) 발행일:2007년 2월 27일
2007카공 183	노영석	자기앞수표 번호:가703579270~275, 가703579281~289	금액:각금100,000원(15매) 발행일:2007년 2월 27일
2007카공 184	박관석	자기앞수표 번호:가703579270~275, 가703579281~289	금액:각금100,000원(15매) 발행일:2007년 2월 27일
2007카공 185	이경희	자기앞수표 번호:가703579270~275, 가703579281~289	금액:각금100,000원(15매) 발행일:2007년 2월 27일
2007카공 186	박상원	자기앞수표 번호:가703579270~275, 가703579281~289	금액:각금100,000원(15매) 발행일:2007년 2월 27일
2007카공 187	정경숙	자기앞수표 번호:가703579270~275, 가703579281~289	금액:각금100,000원(15매) 발행일:2007년 2월 27일
2007카공 188	유한희	자기앞수표 번호:가703579270~275, 가703579281~289	금액:각금100,000원(15매) 발행일:2007년 2월 27일
2007카공 189	이봉근	자기앞수표 번호:가703579270~275, 가703579281~289	금액:각금100,000원(15매) 발행일:2007년 2월 27일
2007카공 191	백종우	자기앞수표 번호:가703579270~275, 가703579281~289	금액:각금100,000원(15매) 발행일:2007년 2월 27일